

“차 한잔 마시면서도 삶의 고마움 누리야”

서양원 한국제다 회장 부부

“자그마하게 가내공업처럼 공장을 할 때 법정 스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영감님이 키가 훗칠한 스님이 와서 차 이모저모를 묻고 가시더라고요. 그땐 법정 스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그 뒤에 스님과 목포상고 동창인 전남대 박광순 교수가 차를 좋아하는 스님이 한 분 계셔서 만나러 가자면서 스님께 기별을 드렸더니, ‘만데까지 올 게 뭐가 있나 내가 가겠다.’며 오셨어요. 저는 그때 법정 스님께 처음 인사드렸습니다. 다들 스님한테 가까이 가면 배일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어렵다는데, 저는 처음 보았을 때부터 정다운 스님으로 보이더군요.”

부처끼리는 서로 알아본다는데, 병긋 웃는 김상화 김판인 보살(77), 백제서산마을삼존불을 꼭 빼 달았다. 백제의 미소를 담아 별호가 백제보살이라는 김상화 보살이 해주는 밥을 먹지 못한 사람은 차인(茶人)이 아니라는 말이 돌만큼 둘레 사람들에게 많은 공양을 해드렸다. “제가 밥을 많이 했어요. 요 앞길에 원래 저희 땅이었어요. 그때는 마당이 굉장히 넓어서 ‘차의 날’ 행사나 광주에서 하는 행사를 여러 차례 치렀습니다. 스님이 광주에 오시면 제가 꼭 공

차 만드는 이 찾아 나선 법정 스님
다들 배일 것 같은 느낌 받는다는데,
백제보살에겐 정다운 스님으로 보여
공양해 드리면 “다음엔 콩국수를...”

양을 해드렸어요. 처음에 잘해드리려고 뭘 좀 차려드렸더니 ‘차려주셨으니 먹기는 먹는데 다음에는 국수를 해주세요.’ 그러세요. ‘국수를 어떻게 해요?’ 여쭙더니 잣을 조금 넣고 콩국수를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콩국수 말고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셨을까? “다 잘 드시는데 김치에 마늘을 조금만 넣어도 귀신 같이 아시더군요. 오신다고 그러면 김치도 미리 담가놓곤 했어요. 팔죽을 아주 잘 잡수시는데 조금 덜 달면 더 달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달면 달다고 그러시고 식성이 조금 까다로우세요. 몇 번 견다보니까 스님 식성을 알아가지고 김상화 보살이 해주는 음식은 잔소리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한 번은 화순 사평에 있는 ‘데사리(다슬기) 수제비를 먹으러 갈까?’ 그러시기에 제가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는 사평에 가서 고동 삶은 것을 사다가 원체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말차를 넣어서 반죽을 해서 푸른색을 내고, 홍차를 조금 넣어서 붉은색을 내고, 하얀색하고 삼색수제비를 했더니 ‘하, 재주가 좋다고’ 그러면서 맛있게 드셨어요.”



서양원 한국제다 회장(82)과 부인 김상화 김판인 보살(77). 서산 마을삼존불 미소를 담아 별호가 ‘백제보살’인 그는 법정 스님께 갖는 콩국수와 삼색 다슬기 수제비를 해드렸더니 맛있게 드셨다면서 생전의 스님을 그리워 했다.

광주에서 베토벤음악감상실을 하는 이진옥 사장을 따라 불일암에 처음 갔다는 백제보살. “불일암에도 여러 번 가서 자고 스님 따라서 꽃구경을 많이 다녔습니다. 연꽃도 맞으러 가고, 매화가 필 때 다니고, 대화도 하고, 미항사도 저희가 가져다 말씀드려서 여러 차례 갔습니다. 스님이 강원도 가신 뒤로 좀 드문드문해졌지만 꽃을 보러 스님과 광양으로 해남으로 정재봉 선생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장의 주교님과도 여러 번 다니고, 류시화씨하고도 몇 번 같이 다녔고.”

무남독녀인 백제보살은 지난해 94세를 일기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오래 모셨다. 가끔 절에 다니던 분이 천주교에 가면 장례를 잘 치러준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성당에 다녔다. 어머니를 따라 성당에 가서 교리 공부를 여섯 달을 하고나서 영세를 받기 전날, 아무래도 절에 가야겠다고 마음먹는다. “여기서 무등산으로 쪽 올라가다보면 문빈정사가 있고 더 올라가면 중심사,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약사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인연이라는 것이 있는가 보드만요. 아래 두 절에 들려 마당도 둘러보고 법당에도 가보곤 했는데도 스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약사암에 가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니까 열려 봐도 불자가 아닌 줄 알았는지 스님이 이리 와서 쉬

년, 가뭇이 들자 우르르 미항사로 몰려온 마을사람들은 30년 전 가뭇이 심했을 때 괘불부처님을 모시고 기우제를 지내고 나서 장대비를 퍼부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강 스님에게 “스님! 기우제 좀 지내 주십시오.”하고 매달렸다. 그러나 30년 전 미처 장대비를 피하지 못해 배집이 떨어지다가 모시밖에 남지 않은 괘불탱화를 괘불대에 걸 수 없어 대웅전 앞마당에 펼쳤다. 그때는 미항사 중앙 불사가 막 시작될 때라 지금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마당에 높이 12m 폭 5m나 되는 괘불탱화를 가슴까지 퍼니 마당 반이 차버려 어쩔 수 없이 그만큼만 퍼놓고 기우제를 올리고 두 시간쯤 지났을까? 역시같은 비가 쏟아졌다. 나흘 동안이나 줄기차게.

백제보살과 부군 서양원 회장(82)은 2009년 법정 스님이 제주도에서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았다. 내외분을 맞은 법정 스님은 여느 때처럼 한국제다 차는 봄에 마시나 가을·겨울에 마시나 차 맛이 똑같다. 봄 차는 누가 만들어도 맛있고, 발뒤꿈치로 비벼도 맛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꾸준한 맛을 유지하는 차는 서사장이 만든 차뿐이라며 처사나하고 보살님을 담아 변함이 없다고 칭찬했다. “법정 스님은 꽤 여러 해 동안 햇차가 나오면 꼭 백만 원어치씩 사셨어요. 한 해 내내 두고 드시겠다고 그런데 아프시면서 겨울이 없으신가. 거르셨어요.” 한국제다 차는 저장고에 넣어뒀다가 그때그때 한 번 더 뒤어 내놓으니까, 이른 봄 2월이나 3월에 한국제다 차를 마시는 사람은 벌써 햇차가 나왔느니라 놀란다. “저희는 햇차를 화개나 보성처럼 빨리 만들지 못합니다. 너무 일찍 만들면 맛이 덜해 조금 키워서 만드니까.” 절대미감絶對美感뿐 아니라 절대미감絶對美感 가지고 계셨던 법정 스님은 햇차를 받고 잘 받았다는 인사를 전화로 건넨 적이 한 번도 없다. 꼭 편지로 “맛있다. 또는 조금 차를 덜 볶으면 좋겠다.”고 꼭 짚어서 말씀했다. “우리 집 양반은 유념을 강중해요. 많이 비벼야 차가 침출이 되어서 빛깔이 잘 나오고 맛도 좋고, 찻잎에 있는 영양분을 다 섭취할 수가 있다고. 행여 찻잎이 깨질까봐 살살 비벼면 빛깔이 진하지 않고 노라니 맹물 같어요. 그것은 아니다. 그거여. 목욕만 시켜가지고 마실 거냐? 우리 아들이랑 직원들이 우리도 다른 데 차 같이 많이 비벼지 말고 이파리를 많이 살려놓자고 해마다 그래요. 조금만 비벼서 내놓으면 성글어서 같은 양이라도 부피가 커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맛이 나질 않아. 맛이 없어요. 그걸 아시는 법정 스님은 한국제다 차가 으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햇차가 나오면 가장 먼저 스님께 보내드렸어요. 스님은 가셨지만 스님한테 공양하는 마음으로 해마다 햇차가 나오면 가장 먼저 김상사와 불일암으로 보냅니다.”

법정 스님은 1997년 6월 7일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광주모임 탄생 범문 글자락에 세계에 내로라하는 차와 건물을 때 한국제다 감로차가 으뜸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예향藝鄕인 빛고를 광

서산마을에 불 빼어 닦은 부인 ‘백제보살’
햇차 보내드리면 꼭 편지로 인사
“맛있다...조금 덜 볶았으면” 품평도
서양원 회장 차 만들때 스님의견 유념

었다 가라면서 절에 다니지 않는 보살이냐고 물어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절에 다녀보시오. 보살님은 꼭 보살상이라 절하고 잘 맞았습니다.” 종일 스님이라고 주지스님이었어요. 그 말이 좋았던가, 그 절을 다니게 됐어요.” 그때가 1986년. 그곳에 어린터를 갖 것은 고운 스님이 있었는데 지금 미항사 주지 금강 스님이다. “해인사에서 왔다는 꿈고 예쁜 스님인데 목소리가 창창한 스님이 임시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딸이 다섯이나 되지만 임시기도라는 걸 해 본 적이 없는데, 마침 아들이 고 3이어서 임시기도를 부쳤어요. 우리 아들이 동국대학교 무역학과를 꼭 가고 싶어 하는데 담임선생님이 성적이 안 된다면서 원서를 써주지 않아요. 기어이 써달라니까 담임선생이 재수를 해야 할 거라며 마지못해 써주었어요. 열아홉 명이 임시기도를 올렸는데, 스님이 어쩌나 지성으로 기도를 했는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저희들이 가고 싶어 하던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 인연으로 세월이 오래 지난 지금도 금강 스님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좋아한다. 이 말씀 끝에 전설 같은 미항사 기우제가 떠올랐다. 금강 스님이 지게 스님이라 불리며 절을 다녔던 1992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오직 불자들이 참된 발심을 하여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을 하고자 해도 바르게 이끌어주는 곳이 드물다. (중략) 때문에 바른 불법의 기준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불자들의 수가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애달픈 일인가. (중략) 이 책을 만나는 분들이 모두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며, 불보살님의 가피가 불자님들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 대원 문제현 선사 서문 중에서

- *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니?
- *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인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 풀기 어려운 인연은 어떻게 풀어야 할 겁니까?
- * 종교만 믿으면 천국에 갈 겁니까?
- *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

각권 10,000원
☎ 031-534-3373

**행복의 파랑새는 내 안에 있다
무한한 불성의 힘, 믿고 깨달아 쓰자!**

자기를 비워 세상 전부를 얻는 비움과 나눔의 지혜!
시비·분별 없는 평상심으로 살면 일상의 삶이 도도하다

참선과 금강경 독송의 힘으로 풀어진 더불어 행복한 성공 전래!

“치과의사”가 들려주는
선의를 통한 인생경영

최우현 지음 | 비움과소통 편
국판 148쪽 | 2800원 | 14,000원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중

생활선으로 풀어진 참된 자기개발과 성공학

마음공부와 인생경영이란 두 가지 과제를 선(前)으로 풀어진 자기개발. 저자(최우현 공플러브치과 대표원장)가 조직으로 [금강경]을 독송하고 좌선 하며, 보살행을 실천한 헌을 바탕으로 비엔 치과의사 생활을 하며 살아온 성공 노하우를 불교적 관점에서 풀어냈다. 부주한 현대인들의 마음에 삶의 여유와 진정한 행복, 참된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스며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엮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해동 제일약사도량

동해 약령사

해파스님의 원력과 약사여래의 가피로 불자님의 심신을 치유합니다. 도량의 맑은 기운과 자연에서의 섭생으로 **아토피, 건선, 고질적 피부병**은 물론 **지쳐있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십시오.

피부병(아토피, 건선 등)에 관한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을 통한 질환 개선은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맑은 물 동트는 동해시 두탄산 자락에 편안히 자리잡은 약령사에서 새벽 산사의 독경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소리와 파도소리...

변잡한 일상과 도시를 떠나 맑은 공기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함과 말없음과 움직임과 고요함, 그 모두에서 나 자신을 찾아 삼매에 듭니다. 심신이 약하고 허해서 오는 마음의 병부터 온갖 세속의 고해에 찌들어 벅속까지 상처가 들어간 난치병에 이르기 까지 약사여래의 무궁한 가피력으로 스님의 지극한 기도와 정성 더없는 발원으로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청정도량입니다.

△약령사 법당

-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조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마르지 않는다.
-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정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약령사 천연 초제 비누 >

불자님의 인연에 따라 약령사에서 직접 기도하면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령사 주지 해파 합장 전좌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강원 동해시 대구동 174-2 / 전화 033)521-5453



차를 좋아하신 법정 스님은 차 만드는 곳을 찾아 다니기도 했다. 한국제다 서양원 회장은 "스님에게 제다 방법과 차유통구조를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서양원 회장과 김성희 보살이 정성, 영암, 해남 등 세 곳에서 따온 차잎을 섞으며 흐뭇해 하고 있다. 차 밭이 떨어져 있는 이유는 한결같은 맛을 내기 위한 비결이다.

주는 수식어가 발달한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운치를 누릴 줄 아는 멋이 있는 고장이예요. 기를 쓰고 벌려고 들지 않고 어지간하면 즐기고, 인정이 넘치는 곳이에요. 우리 한국사람 특성인데, 그동안 좋은 점이 가려져있었거든요. 게다가 세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좋은 차가 광주에서 나니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 녹차뿐 아니라 중국·일본차를 두루 마셔봤지만, 한국제다 감로차 맛을 느낄 수 없어요. 차 맛을 잘 아는 일본, 중국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예요. 한국제다 감로차는 세계적이예요. 이 좋은 차가 이 고장에서 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해요. 그 까닭은 이곳 사람들 혀 감각이 섬세해서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감로를 많이 마시면 장수해요. 본의 아니게 차 선전을 하는데, 감로甘露라는 말은 불교에서 나오는 말인데 암리타amrita, 영생불사永生不死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차가 있으니 하는 이야기인데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삶에 고마움을 느끼고 누리야 합니다. 광주는 한갓 이름에 지나지 않아요. 그 안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바로 실체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광주는 이름 그대로 빛고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광주가 진정한 영광을 이루려면 삶이 맑고 향기로워져야 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인연으로 광주가 이름 그대로 영원히 빛나는 고을이 되기를 빌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차를 향한 한국제다 내외부 정성이 얼마나 미더웠으면 많은 대중이 모인 법석에서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셨을까.

법정 스님 49재는 송광사뿐 아니라 해남 미황사에서 치렀다. 병상에서 스님을 모셨던 분들이 던지시 부탁을 했기 때문이다. "송광사로 가려고 차비를 하는데 하루 전날 미황사에서 스님 재를 지낸다는 연락이 와서 갔어요. 스님이 좋아하셨다는 회고자하고, 능이버섯국과 아보카도라고 시켜달게 생긴 과일을 한 바구니 올렸어요. 저도 스님이 좋아하시던 차를 올려서 조촐했어요."

말씀이 무르익을 무렵 몸이 좋지 않아 못나온다던

"한국제다 감로차는 세계적인 차 차사님과 보살님 닮아 한 맛 유지"

브랜드 '설록차' 태평양 화학에 넘긴 서양원 회장 차문화 발달에 기여

한국제다 서양원 회장이 들어왔다. 인사라도 하려고 들렀다면서. "우리나라 불교와 차 교류에 큰 획을 그은 거북이 돌아가셔서 충격이 크죠. 법정 스님은 특히 글을 쓰다가 정신이 흐려질 때도 저희 감로차를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든다는 말씀을 하실 만큼 저희 차를 좋아하셨어요. 차 선물이 많이 들어와도 다 누구 줘버리고 아무리 비싸도 소용없어요. 깨끗하고 정갈한 차만 드셨어요. 법정 스님처럼 차를 아끼는 글을 많이 남긴 분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단순하고 담백한 성격 그대로 글도 쓰시고 차 산업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 그 양반에게 제다 방법이나 차 유통구조를 많이 배웠습니."

1951년 한국전쟁 한 가운데서 차를 만들기 시작한 한국제다 서양원 회장은 젊어서 지금 한전 전신 가운데 하나인 남전합동전기회사에 다녔다. 그때 거래처 가운데 우리가 흔히 양은냄비, 양은주전자라고 부르는 노란 양은그릇을 만드는 알루미나 공장이 있었다. 그곳에서 그릇에 물을 들이는데 홍차를 쓰는 것을 보고는 '사업이 되겠구나!' 싶었다. 고향 광양에 작설차 나무가 있어서 인이 박하게 먹었기 때문에 차맛을 바로 알았을 수 있었기에. "홍차를 공업용으로 쓰는 방법을 터득해 6년 동안 납품을 했습니. 홍차는 세계 3대 기호음료에 들어갈 만큼 많이 마시는 음료입니다. 그러나 식음료로 처음 만들 때는 차를 만들어도 팔 데가 없어서 공짜로 퍼주면서 시장을 만들었어요."

차근차근 성장가도를 달리던 70년 대 초, 전남 보성군에서 차를 보성농특산물로 정하고 차농사를 독려하다 차 수요가 줄어들어 판로가 막히자 서양원 회장이 매달렸다. 서 회장은 10년 동안 보성 농가 차를

사주기로 약속한다. "보성농가 57세대와 전량 수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돈으로 450만원을 전도금으로 줬어요. 부동산을 잡고 공장을 하고 어음을 받았어요. 73년부터 84년 계약이 끝날 때까지 빌려준 돈인데 계약기간이 끝난 지 몇 십 년이 지나도록 돌려줄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 홍차를 5년 동안은 동서식품에서 모두 사했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우리 차 문화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고사 상태에 놓였다. 그러다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 신비한 영약이라며 선전을 일으켰던 '홍차버섯' 덕분에 소비가 늘자 몇몇 제다업자들이 고무마 잎이나 동백나무 잎에 색소를 넣은 가짜 홍차를 만들어 팔았다. 언론은 '당신은 가짜 홍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시중 홍차 거의 가짜'라고 크게 써 뒀고, 홍차시장은 무너져 내렸다. "동서식품 초대회장 김재명씨가 내 말을 듣고 홍차를 5년 남짓하다가 가짜 홍차 파동을 겪으면서 아이고 못하겠다 손을 들고 말았어요." 동서식품이 빠지자 서양원 회장은 태평양화학 서성한 회장을 설득했다. 기꺼이 차를 사준 서성한 회장이 너무 고마워 서양원 회장은 아끼던 브랜드 '설록차'를 기쁜 마음으로 태평양화학에 넘겼다. "일가 어른이라 참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차문화가 발달한 배경에 서양원 회장 딸과 정성이 서려있다. 한국제다 차밭은 장성과 영암, 해남 세 곳에 있는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은 최소 50킬로미터는 떨어진 곳에서 난 차를 섞어야 차 맛이 한결같기 때문이란단. 차 맛이 한결같은 데는 비결이 더 있다. 구수하고 넉넉한 백제보살 품 때문일까? 군대 제대하고 스텐살에 와서 일흔이 넘은 공장장을 비롯해 공장에 20년이 넘는 근속자가 네 사람이나 있다. 올해 마흔아홉 살로 사무실 살림을 하는 관리직 임자도 처녀 때부터 근무하다가 결혼하고 삼 년 쉬다가 다시 나와 이제까지 함께한다. 차밭뿐 아니라 사람들마저 불박이나 차 맛이 한결같은 수밖에.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고영배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명예교수

장미

길목에도 이쪽 담장에도 얼굴을 내밀고 있는 장미를 본다. 유난히 초등학교 울타리에 피어 있는 장미는 응고된 사색의 실타래를 풀어내기에 충분하다. 울타리는 흔히 볼 수 있는 연꽃철사로 만들어 졌다. 마치 가로 세로 줄을 그어 놓은 듯 간격을 유지해 정연한 양이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더욱 발길을 잡는 것이 있다. 다름 아닌 넝쿨장미가 수놓고 있기 때문이다.

오전지에 악보를 그려 넣듯이 하루가 다르게 울타리를 오르며 꽃을 피우고 있다. 그 장미의 성장을 보며 정진이란 단순한 말이 아니고 저와 같은 성장요인 결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간혹 바람이 찾아오면 장미의 음계는 이내 달라지기도 한다. 계절조가 되기도 하고 장조가 되기도 하는 모습은 흡사 인생의 굽이마냥 다양한 음계를 만들어 놓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물레따(muleta)가 되어 나부끼기도 하고 금새 투우사의 망토가 되어 나풀거리기도 한다. 투우사에게 물레따는 긴요한 소지품이다. 나무 막대기를 넣은 물레따는 붉은 천으로 만들었으며 소와 가까이서 소를 유인하는 도구이다. 관중의 갈채 속에 등장한 투우사는 소와 예술의 한 마당을 펼치는 투우의 배미가 펼쳐진다.

장미는 분류방법에 따라 갖춘 꽃, 안갖춘 꽃, 갈래 꽃으로 나누기도 한다. 갖춘 꽃이란 꽃받침·꽃잎·암술·수술을 완전히 갖춘 꽃을 말하고 안갖춘 꽃은 꽃받침·꽃잎·수술·암술 중에서 어느 것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꽃을 말한다. 갈래 꽃은 꽃잎이 갈라져 있는 꽃으로 이판화(離瓣花)라고도 한다.

장미의 꽃말은 사랑이다. 빨간 장미는 욕망, 열정, 기쁨,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송이별 꽃말도 있다. 빨간 송이의 꽃말은 '당신은 킵카입니다'이다. 킵카(king-card)는 외모가 특히 빼어난 남자를 말한다.

나에게는 아련한 기억이 스며들리는 장미가 있다. 소년시절에 썼던 일기장 표지의 붉은 장미이다. 그저 장미러니 생각하고 지나쳤던 장미가 킵카를 의미했다니 놀랄만한 일이다. 외모가 뛰어난 남자는 다수가 연예인이 되어 대중의 찬사를 한 몸에 받으며 무대에 올라 갈채를 받고 산다. 그들에게는 인생의 회한이 없고 환희만이 넘쳐나는 듯하다. 그러나 속내를 알고 보면 좌절과 애환이 있었고 암울한 시기도 있었으리라. 마치 아름다운 장미에 가시가 도사리고 있고 잔디밭이 끼여듯이.

일기장을 펼치며 매일 매일 보았을 장미는 '당신은 킵카입니다'라고 무언의 속삭임이 있었으면 지금의 나는 삶이 영 판단이다. 하기

야 삶을 단편적으로 숙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질과 양의 무게가 다르기 마련이고, 단발성이나 연속성이나의 문제도 아니라고 말이다.

오래 전에 나의 연구실에는 투명한 유리컵에 붉은 장미 한 송이와 안개꽃이 어우러져 놓여 있었다. 그들의 수명을 연장에 보려고 물도 반 컵쯤 담아 놓았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유한하기에 언젠가 헤어질 날을 대비하여 소묘를 그려 놓았다. 그 실물은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이제 분신은 소묘1이라는 이름으로 <최현각 선학 전집> 11권에 자리하고 있다.

빨간 장미와 안개꽃이 갖는 의미가 '오늘 만큼은 그냥 보낼 수 없어요'라고 한다. 그래서 그랬던지 오늘 만큼은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의미를 되뇌이며 소멸해가는 시간 속에 작은 여운을 남겨 둔 것이다. 소묘의 영혼은 여운을 남기고 자유로이 허공을 선회할 것이다.

꽃만 본 사람 '장미꽃은 아름답다' 즐거만 본 사람 '가시만 있다' 뿌리만 본 사람 '미생물 득실득실' 넝쿨장미 보며 '사물은 보기 나름'

전해린의 <목마른 계절>에 나오는 시가 생각난다.

지상의 공간에 산 모든 것은
지나가버린다.
그러나 나에게네 네가 있다
지나가버리지 않는
무상의 거친 파도가
사랑의 해안에 높이 부딪친다

- 리카르다 후흐 -

선에서 양보 없이 치닫는 문제가 있다. 욕심 각신의 표본이라고나 할까. 돈오(頓悟)니 점오(漸悟)니 하는 문제이다. 마치 장미를 보는 사람에 따라 분수 끝 말하듯이 판이한 견해를 편다. 꽃만 본 사람은 장미꽃은 아름답다고만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상반된 견해도 있다. 즐기만 본 사람의 경우 장미는 거친 가시만 있다고 고집할 것이다. 뿌리를 본 사람인들 없을까. 이 경우 미생물과 곤충이 득실거린다고 내세울 것이다. 사물은 보기 나름이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오늘도 넝쿨장미는 사유하는 사람의 반려자가 된다.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어색한등



판타지등



주름등



왕관등



칼판등



영가등



극락왕생



공단등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이제는 범당 연등 설치도 바쁜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문장대 인등



찬덕영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영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1번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 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